

Market Issue

미중 정상회담 체크포인트

-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핵심 논의 주제는 이란, 무역 관계. 미국은 중국을 활용해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계획. 정상회담 이후 이란 스탠스 변화 여부에 주목
- 무역 관련해서는 무역위원회 설립 여부에 주목. 기존 관세율 조절을 활용한 방법보다 체계적으로 양국 무역 관계를 관리할 방침. 향후 무역 불확실성 감소 요인
- 희토류 공급, AI 리스크 관리 등도 주요 논의 주제. AI를 활용한 사이버 테러, 군사적 명령 자동화 등 AI 개발로 인한 부작용 방지 목적

미중 정상회담 키워드는 안정성: 이란 전쟁 협조, 무역 관계 관리 논의 예정

이번주 14~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회담의 전체적인 목표는 안정성 확보로 여겨진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기를 안정시켜야 하는 시점에서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중국을 활용해 이란 전쟁도 마무리 짓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추가적으로 희토류 공급 확대와 각종 상업적 계약 체결도 예상된다. AI 리스크 관리를 위한 협업체 형성과 관련해 양국의 합의가 이루어질지도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금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중국 허리펑 부통령과 미국 무역 교섭단이 접촉해 정상회담 전 위원회에 대해 논의를 나눌 전망이다.

여러 목표 중에서 이란 관련 논의가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 봉쇄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중국이 이란을 압박해 이란이 미국의 종전 조건을 더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 수출의 80% 이상을 수입하는 최대 고객으로 이란에 대해 레버리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원유 비축량은 상당하지만 원유 수입 의존도가 상당한 만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야 하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압박이 가해지면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이란 전쟁 관련 우려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표 1. 미국-중국 정상회담 잠정 논의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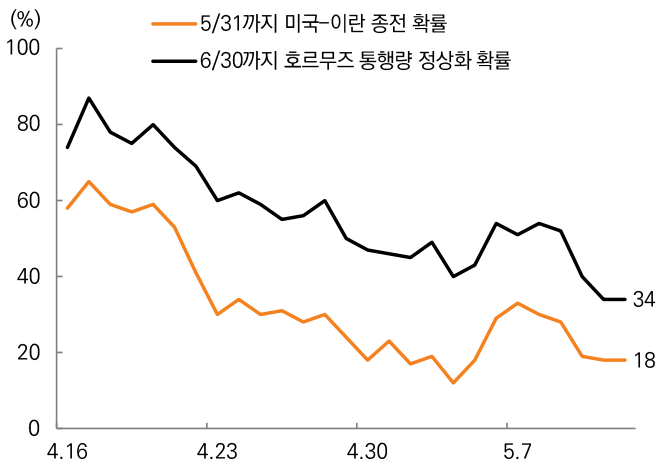
논의 주제	논의 방향	세부 내용
이란	이란의 강경 포지션 완화 압박	미국은 중국이 이란에 지닌 레버리지를 활용해 이란의 포지션 완화를 압박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 수출 완화 등 대가를 얻어내려고 할 전망
무역/투자	안정적 무역 관계 형성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추진 필수 상품, 비필수 상품을 구분해 중국과의 무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중국은 투자위원회를 통해 미국내 투자 제한 완화를 원하는 모습
희토류/상업적 계약	핵심 광물 공급 확대 항공기, 농산물의 구매 약속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공급 확대를 원함.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전쟁에서 소진된 무기 비축량도 늘려야 하는 입장 중국의 대규모 보잉 항공기 구매 약속 및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 구매 촉구
AI 리스크	양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양국간 AI 개발 경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AI 관련 리스크 통제 목표 사이버 테러, 군사 행동 자동화 등 AI 개발로 인한 부작용 방지 목적
대만 문제	미국의 대만 지원 억제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 중국은 양국의 안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조건으로 미국의 무기 수출 제한을 제시할 가능성 대만 문제를 제기해 향후 미국의 노골적인 대만 지원을 억제하겠다는 계산

자료: World Economic Forum, CSI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무역 관계 변화에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관세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관리해 왔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라는 플랫폼이 신설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무역위원회는 양국의 거래 물품을 전략적(strategic) 상품, 비전략적(non-strategic) 상품으로 구분해 양국의 무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을 지닌 다.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관세 관련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올 해 2월 IEPA 기반 상호관세가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데 이어 ITC가 122조 10% 관세에도 위법 판결을 내렸다. 또한 관세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중국이 비전략적 상품 구매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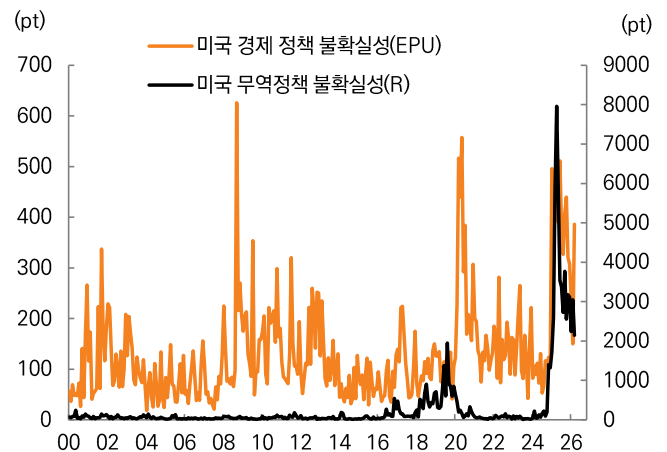
무역위원회와 함께 양국간 투자 관계를 관리하는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설립 도 발표도 예상된다. 대미 투자 조건 완화를 원하는 중국의 요구가 반영된 부분이다. 투자 위원회를 통해 중국의 대미 투자 분야를 관리하는 개념으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비전략적 산업에 대한 중국 투자는 앞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미국내 제조업 시설 투자 허가가 논의되는 중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내 매파적 성향 인원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어 무역에 비해서는 설립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림 1. 베팅시장에 반영된 이란 종전, 호르무즈 정상화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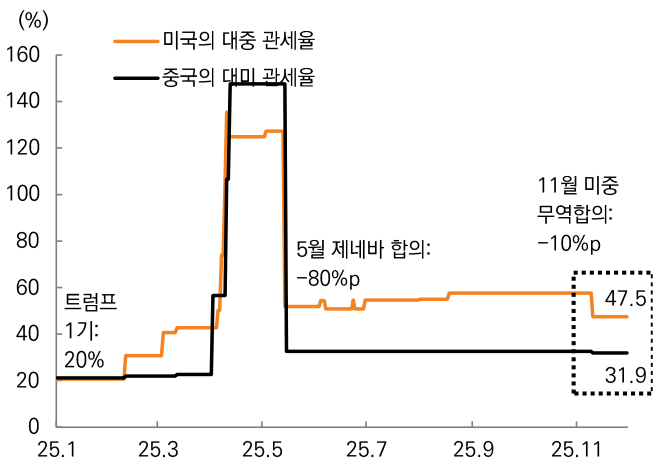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Polymark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미국 무역 정책 불확실성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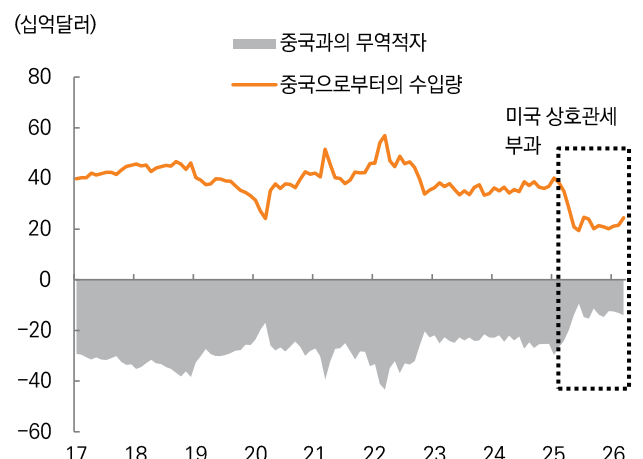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 변화



자료: PII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미국의 대중 수입량 감소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희토류 공급 확대 여부와 AI 규제 리스크에도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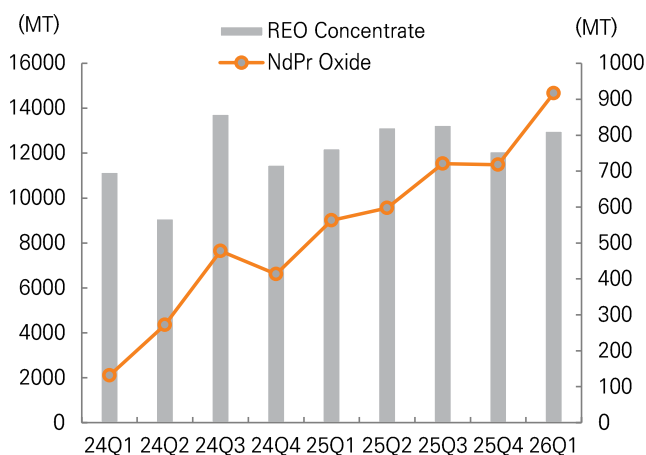
무역 관련 논의에서 희토류 관련 부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년 10월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수출 제한을 1년간 연기하는데 성공했다. 미국은 해당 합의를 유지하는 한편 최대한 공급량을 늘리려고 노력할 전망이다. 미국 자체적으로 핵심 광물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란 전쟁에서 소진된 물자를 보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가 공급이 확보되더라도 자체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주 MP Materials 실적에서도 핵심 광물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결실을 조금씩 맺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지난 1분기 MP의 매출은 전년대비 49% 증가했는데, 영구자석 생산의 원료인 NdPr 생산량이 전년대비 63% 늘어난 영향이다. 미국 국방부의 지원에 힘입어 신규 자석 생산 시설인 10X도 건설을 개시했고, Dy와 Tb 생산 작업도 2분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서방권 공급망내 핵심 광물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추가적으로 AI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양국간 AI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AI 모델의 발전으로 양국이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예상하지 못한 AI의 행동, 자동화된 군사 시스템, AI 도구를 활용한 테러, 무장 단체 등 nonstate actor들의 행동이 대표적인 리스크다. 2023년 바이든 행정부와 의 미국-중국 AI Dialogue 수립, 2024년 핵사용 권한에 AI 활용 금지 합의에 이은 노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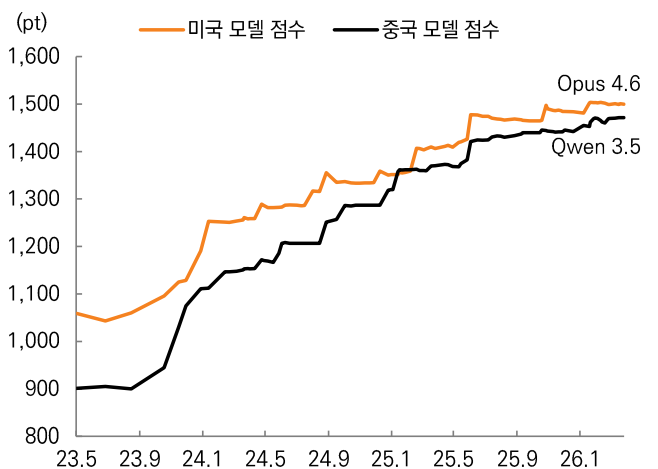
미국과 중국의 AI 개발 경쟁은 이어지겠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행정부내 규제 강화 기조가 나타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AI와 관련 인프라에 대한 여론 악화로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데이터센터가 밀집된 버지니아주 예산에 16억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 세제 혜택 연장에 반대가 거세지면서 예산 통과가 어려움을 겪는 중이고, 민주당 하원의원장도 AI 정책과 관련해 유권자들의 생활고에 신경 쓰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림 5. MP Materials NdPr 생산량 증가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미국과 중국 AI 모델 성능 비교



자료: Stanford AI Index(2026),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